

은행연합회 "금융지주도 인터넷은행 허용해 달라"

한국경제

은행 계열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뱅크 인 뱅크(BIB · 은행 안의 은행)'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는 133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모바일뱅킹 이용 횟수도 1033만 건으로 18.8% 늘었다.

신규분양 대출, LTV-DTI 규제 완화

동아일보

국토교통부는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신축 아파트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현재 LTV, 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조정대상지역에선 50% 적용

'금소법 혼란' 진화나선 은성수, 금융업계 CEO들과 연쇄 미팅

매일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혼선이 가중되자 업권별로 CEO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하고 혼선을 줄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코로나 1년, 5대 은행서 33조 나갔다

아시아경제

올해 1분기 기준 지난 1년 새(2020년 1분기 대비) 나간 신규 자영업자 대출만 33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월(225조5896억원) 기준 순증액 19조3150원에 비해서는 13조7713억원(23.22%)이 증가한 수치

은성수 "공매도 재개 시스템 20일 시범가동"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필요한 법 개정은 이미 마쳤고 한국거래소 시스템도 다 됐고, 남은 것은 대차정보시스템과 대주시스템 구축"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별로 문의한 결과 대체로 5월 3일 재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을 들었다"면서 "오는 20일쯤 시스템 시험가동을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장 떠나는 美 개미들… 로빈후드 접속 63% 급감

파이낸셜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26일 기준 미 개인들의 주식 순 매수액이 7억7200만달러, 약 20억달러에 달했던 올해 1월 26일에 비해 60% 줄어든 수치며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금액
증권 거래 플랫폼 트래픽도 크게 줄었다. 로빈후드의 경우 지난 1월 31일 일평균 접속 트래픽이 510.7만건이었으나 3월 28일에는 188.7만건으로 63% 가까이 하락

'소수점 매매' 금융위만 쳐다보는 핀테크 증권사

이투데이

토스증권은 최근 새로운 MTS를 내놨고, 카카오페이증권은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MTS 구성 단계에서부터 소수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완료
실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으로서 소수점매매 도입에 대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NH증권이 다 책임지라니… 하나銀 · 예탁원 연대배상 강조

매일경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배상 책임을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모두 지우는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며 작성 발언
정 사장은 5일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탁회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연대해 책임을 지는 다자간 배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